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4 “우리도 뛴다”

화순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화순공설 운동장에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화순마라톤클럽 제공〉

‘고인돌 고장’ 명예 걸고 질주

■ 화순마라톤 클럽

“화순의 명예를 위해서 17명의 정예요원이 결승선을 향해 질주합니다.”

화순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비장한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03년 결성된 화순마라톤클럽은 40여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 ‘고인돌의 고장’ 화순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회원들은 단순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향에서 열리는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를 주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건강과 애향심을 키우고 있다.

이들에게 전국 3·1절 마라톤 대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개막전으로 어느 대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매주 1회 실전 방불 고강도 훈련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를 창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병주(57) 전회장은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3·1 마라톤에서 산뜻한 출발을 하고 싶다”며 “마라톤으로 다져진 건강으로 화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산행도 하고 서로 애경사를 챙기면서 가족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훈련 시간만큼은 프로 선수들 못지 않게 진지하다. 매주 1차례 화순 공설운동장을 5, 10㎞, 하프코스로 나눠서 질주하고 여름에는 너릿재를 달리며 자연 속에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합기도 관장인 이광주(35)씨는 서브3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철인 3종경기에도 나서는 등의 클럽의 대표적인 실력파다. 클럽의 여성파워 한성희(43)씨 등 주부 4명도 보성 녹차·장흥 정남진 마라톤 상위 입상의 탄탄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계획이다.

‘마라톤으로 암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 모두 건강미를 자랑한다.

부부 마라토너 4쌍도 출전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조명훈(40)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 디스크 수술까지 받는 등 고생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마라톤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서금용(47)씨도 마라톤을 통해 10㎏ 가까이 체중을 줄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마라톤으로 건강은 물론 사랑을 키우고 있는 부부 커플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이번 대회에는 조보현(51), 양금남(여·50)씨 커플을 비롯한 4쌍의 부부가 마라톤으로 다져진 금슬을 과시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회원 30여 명이 한국과 화순을 알리기 위해 일본 이브스키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출전,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일본 열도를 달리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만 4번의 풀코스를 뛰었던 조영만(57)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하프코스를 뛰면서 컨디션 점검에 나서게 된다. 조 회장은 “마라톤을 통해 젊은이들 못지 않는 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목표에 늘 도전하게 되는 만큼 늘 활기차게 살고 있다”며 “3시간대를 주파하고 있는 만큼 보스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날까지 화순과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현일, ‘세계랭킹 1위’ 꺾다

中 린단에 역전…男단식 제패
이용대-이효정 조 혼복 우승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현일(김천시청)이 세계랭킹 1위를 꺾고 정상에 올라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다.

이현일은 27일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2008 요넥스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최종일 남자단식 결승에서 랭킹 1위인 중국의 린단에게 2-1(4-21 23-21 25-23)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해 대표팀 이탈 파동을 겪었던 이현일은 지난 주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에 이어 코리아오픈에서 세계 정상들을 모두 꺾고 금메달을 획득,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국이 코리아오픈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1996년 김학균 이후 12년만이다.

이날 이현일은 1세트를 4-21로 맥없이 무너져 린단의 벽을 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2세트에서 듀스 접전 끝에 23-21로 승리한 이현일은 3세트에서는 일진일퇴의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마지막 고비에서는 18-20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지만 극적으로 듀스에 성공한 이현일은 1점씩을 주고받다 25-23으로 극적인 승리를 낚아 최대어를 잡았다.

앞서 벌어진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조가 인도네시아의 세계랭킹 5위 플랜디 림펠리-비타 마리사 조를 2-1(15-21 21-14 21-18)로 꺾고 우승했다.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홍콩의 초우미가 중국의 루란을 2-1로 누르고 우승했다.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8 요넥스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남자단식 결승에서 한국의 이현일이 세계1위 중국 린단을 상대로 열전을 벌이고 있다. 이현일이 2-1로 역전승해 우승했다. /연합뉴스

전남 전국체전 성공 기원

보고회·심포지엄 등 개최

전남도 개도 이래 처음인 제89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보고회와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여수에서 열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여수시청에서 박준영 지사 주재로 전국체전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 지사를 비롯,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오현섭 여수시장, 체육회 관계자, 음식·숙박업 지회장 등이 참가해 추진상황과 경기장 시설 배치 및 개보수 상황, 식음료 및 숙박, 교통대책 등 각 분야별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보고회에 이어 목포대 스포츠산업연구소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열어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발전 등 전국체전을 통한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역도산 외손자 다무라 게이

日 고시엔대회 투수로 출전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역도산(한국명 김신락)의 외손자가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 대회에 투수로 출전하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데일리스포츠는 27일 가나가와현 게이오고교의 2학년 좌완 에이스 다무라 게이(18)가 내달 22일부터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고시엔구장에서 열리는 제80회 고시엔 봄 대회에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28일(월)

▲2008 PGA 뷰익 인비테이셔널 FR(05 : 00·SBS골프·SBS스포츠)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R.마드리드 : 비야레알〉(05 : 00·KBS N SPORTS)

▲2008 챔피언스투어 터틀베이 챔피언십 FR(09 : 00·SBS골프)

▲2008 WKBL총재배 전국 여중 농구(15 : 30·SBS스포츠)

▲07/08 V리그〈GS칼텍스 : 현대건설〉(16 : 30·KBS N SPORTS)〈삼성생명 : 한국전력〉(19 : 00·KBS N 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신한은행〉(18 : 50·SBS스포츠)